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개최

- 123만명이 가입, 최대 24만원(일시납입의 경우 77만원)의 기여금 수령 -
-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 -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수렴
-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상당수가 ①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났고, ②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긍정 평가
- ✓ 은행권은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중도해지이율을 기본금리 수준(3.8~4.5%)으로 상향조정 완료(은행권 3년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 → 기여금·비과세 혜택까지 고려시 연 6.9%의 일반적금융상품에 가입한 효과
- ✓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가 되도록 지속 운영
- ✓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그룹”을 구성하여 청년도약계좌 이용경험 및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 금융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금융 정책과제 발굴·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22일(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서울 중구)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 개요 >

- ◇ 일시/장소 : '24.5.22.(수) 14:00~15:00 /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
- ◇ 참 석 :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청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일반청년, 청년보좌역, 금융위 2030 지문단

김소영 부위원장은 '23.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24.4월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였다고 밝히면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현황('24.4월말 기준)

	✓ 가입자 평균연령 : 28.1세	✓ 가입 후 평균 4.7개월 경과
	✓ 평균 납입잔액 : 469만원 * 일시납입액 포함 * 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	✓ 평균 기여금 수령액 : 17만원 - 일반납입 : 최대 24만원 - 일시납입 : 최대 77만원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온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도약계좌 제도·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추진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제도 개선사항

개선 조치	추진 상황
▶ 육아휴직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 육아휴직 급여수당 및 군 장병급여의 개인소득 인정	- 육아휴직자 가입 : '24.1.2. 시행 - 병역이행 청년 가입 : '24.3.25. 시행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 추가 * 특별중도해지시, 금리·기여금·세제혜택 수령 가능	- '24.2.29. 시행
▶ 가구소득 요건 개선 * 가입요건 : 중위소득 180% 이하 → 250% 이하	- '24.3.12. 시행
▶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지원 확대 * ① 중도해지이율 개선 ② 이자소득세 비과세 유지 ③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 중도해지이율 개선 : 은행 약관 개정 완료·시행 - 이자소득세 비과세 유지 : '24년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 정부기여금 일부 지급 : '24년내 약관 개정 예정

【 주요 논의사항 】

오늘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 금리 수준인 3.8%~4.5%(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0%)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3년 경과 기준) 조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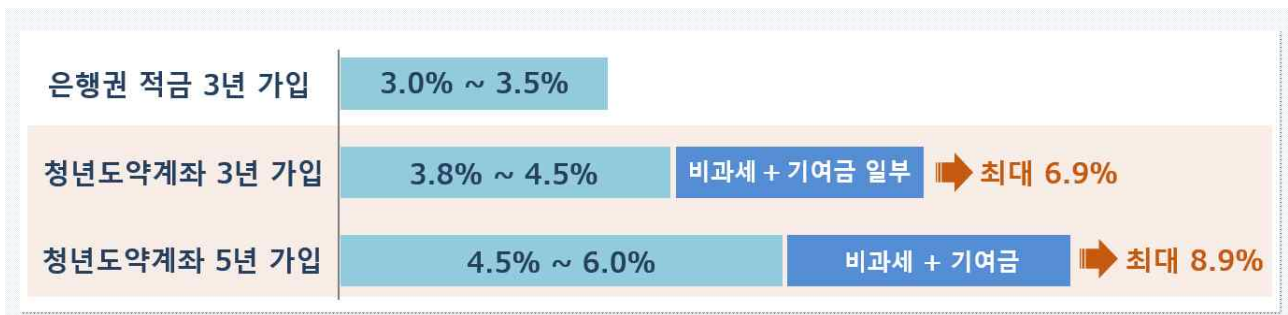
은행	기존	조정	은행	기존	조정
국민 신한 농협 우리 기업 하나	1.0%~2.4%	4.5%	대구	1.0%~2.4%	4.0%
			부산		
			경남	1.0%~2.4%	3.8%
			전북		
			광주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 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 가입후 3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청년도약계좌 vs 일반적금 수익효과 비교 (연이율)



* 은행권 적금 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기준('24.5월 시중은행)

* 청년도약계좌 수익효과 :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월 70만원 납부 가정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논의되었다.

금융연구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상당수가 ①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났고, ②스스로 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①91%가 청년도약계좌를 인지하고 있고, ②72%는 청년도약계좌가 주식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③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45%가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높다고 응답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향후 금융여건 변화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의 대표적인 적금상품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4년 하반기에 개설 예정인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 센터(가칭)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24.6월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개소*하여 그동안 비대면 전화상담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 별도 공간을 확보·개소 예정

** 대면상담 인력 배치, 시·청각장애인용 상담자료 비치, 상담자 교육 강화 등 추진

'24년 하반기에는 대면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여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는 청년들의 금융 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재무설계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 청년 수요자 의견수렴 】

오늘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등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치, 가구소득 요건 개선 등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갖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가 금융상품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생애주기(결혼, 주거마련, 출산 등)와 관련된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비교적 긴 만기까지 납입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청년층의 가입 수요가 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청년들이 제안한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6월 중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그룹(Focus Group)”*을 구성하고 인터뷰, 토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아이디어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포커스그룹 : 청년 30여명 내외로 구성
- 인터뷰·토론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이용 경험, 개선 아이디어 등 발굴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Youth Finance) 실무 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 청년금융 실무작업반 : 금융위 주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부처·기관·전문가 참여
-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 발굴·협의

※ 별첨 : 청년도약계좌 10문10답 설명서

< 담당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기정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김이재 (02-2100-1686) 임재원 (02-2100-1688)
< 협조 >	은행연합회 수신자금부	책임자	본부장	이인균 (02-3705-5184)
		담당자	부장	여인채 (02-3705-570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책임자	본부장	김진휘 (02-2128-8080)
		담당자	부장	이윤경 (02-2128-8216)